

점성Q | 걸그룹 열풍의 비밀

“아시아선 통할 Girl”...쏟아지는 ‘걸’ 들

■ 걸그룹 해마다 붐을 왜?

국내 포화 불기 일본 등서 인기
“적어도 내년까지는 수요 지속”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원더걸스와 소녀시대 이후 해마다 걸 그룹이 등장하고 있다. 2010년만 따져도 미쓰에이, 씨스타, 걸스데이, 나인뮤지스, 비틀즈 등이 데뷔했다.

이들은 소녀시대와 투애니원, 카라 등 톱클래스 걸그룹뿐만 아니라 티아라, 시크릿, 애프터스쿨, 에프엑스 등 A급 스타로 오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

는 2~3년차 그룹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미쓰에이와 씨스타만 두드러진 성과를 올렸다.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걸그룹이 홍수를 이루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여야 하는데도 매년 새로운 걸그룹의 등장은 멈추지 않는다.

음반제작자들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걸그룹 시장은 살아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2007년 원더걸스의 ‘텔 미’ 이후 해마다 새로운 걸그룹이 등장하지만 그 속에서 ‘되는 걸그룹’ 역시 매년 등장했다.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걸그룹의 수요가 높다는 점



미쓰에이

이 걸그룹의 탄생에 부추기는 요소다.

포미닛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서 분사해 걸그룹을 기획중인 에이-큐브 엔터테인먼트 최진호 대표는 “걸그룹 시장이 포화상태라 하지만 알고 보

면 여전히 호황이다. 특히 소녀시대와 카라가 일본에서 성공하면서 아시아가 단일 시장이 돼 수요도 훨씬 높다”면서 “문제는 걸그룹의 수가 아니라, 누가 어떤 매력을 가졌고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는 품질의 문제”라고 말했다.

연내 데뷔시킬 걸그룹을 기획중인 코어콘텐츠미디어 이응용 이사는 “여차피 신인을 계속해서 내야하는 기획사 입장으로선 가장 잘 될 것 같은 신인을 내게 된다. 걸그룹은 아직 시장에서 ‘되는’ 아이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걸그룹 신인들이 매년 쏟아지고 있지만, 실력이 우수한 신인들은 대중의 눈높이를 높여주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많은 걸그룹이 새롭게 등장해 어느 해보다 경쟁이 치열했던 2010년, 데뷔하자마자 ‘푸시푸시’ ‘가식걸’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낸 씨스타.

“가요계 뒤집을 것”...브레이브걸스 3월 뜬다

■ 2011년 데뷔 준비중인 걸그룹은?

히트곡 제조기 ‘용감한 형제’가 기획
‘국악고 김연아’ 김가영도 5인조 데뷔

2011년 데뷔를 준비하는 새로운 걸 그룹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4일 데뷔음반 ‘수파 두파 디바’로 데뷔하는 6인조 달샤벳을 시작으로 대형 기획사나 유명 프로듀서가 준비하는 걸그룹들이 속속 가요계에 도전장을 낸다.

달샤벳을 이어 데뷔하는 걸그룹 중 주목할 신인 중 하나는 인기 프로듀서 용감한 형제가 제작하는 ‘브레이브걸스’다.

렉시의 ‘하늘 위로’를 시작으로 빅뱅, 손담비, 애프터스쿨, 씨스타 등의 히트곡

을 써온 용감한 형제는 3월 5인조 걸그룹 ‘브레이브걸스’를 내놓는다.

브레이브걸스는 3년간 용감한 형제의 기획아래 준비해온 기대주로, 이미 노래와 춤이 완성돼 연습에 한창이다. 국내에 힙합과 일렉트로니카를 접목한 ‘힙트로닉’ 시장을 개척한 용감한 형제는 브레이브걸스에 그간의 노하우를 모두 담았다. 용감한 형제는 “가요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걸그룹이다. 내 모든 역량을 바쳤다. 기존의 음악이 아닌 특이한 음악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야 할 무서운 신인이다. 기대해도 좋다”며 자신감을 드러낸다.

비스트, 포미닛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도 새로운 걸그룹을 내놓는다. 2년의 연습기간을 거친 여성 7인조로, 멤버 모두 라이브와 퍼포먼스가 뛰어난 평균연령



18세다.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시장을 겨냥하고 있으며, 소속사 측은 “기존의 걸그룹과 분명히 차별화되는 매력을 가진 걸그룹”이라고 소개했다.

에릭 소속사 탑클래스엔터테인먼트도 3월 신인 걸그룹을 데뷔시킨다. 아직 팀명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화 이민우가 곡을 주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화제다. 이 그룹의 멤버는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들로 구성됐다. 2010년 5월 디지털 싱글 ‘바보같이’로 데뷔한 여성 2인조 하니 듀(이슬·조영진)를 주축, 여기에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 시청

자 투어 팬에 출연한 뒤 ‘국악고 김연아’란 애칭을 얻으며 화제가 된 김가영(사진) 등 5명으로 이뤄졌다. 하니 듀의 이슬은 ‘해피선데이’의 코너 ‘남자의 자격-남자 그리고 하모니’에서 합창단원으로 친숙하다.

티아라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도 여름에 데뷔를 목표로 걸그룹을 준비중이다. 아직 팀 이름과 정확한 멤버수를 확정하지 않았다. 멤버 연령대가 20대 초중반이며 이미 얼굴이 알려진 연기자 출신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아직까지 여러 가능성을 놓고 기획중이라 자세한 설명은 곤란하다”면서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그룹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들 대형기획사가 내놓는 걸그룹 외에도 지난 해까지 휘성이 소속됐던 팝업엔터테인먼트 등 중소기획사들도 연내 걸그룹을 선보이는 등 올해도 약 10팀의 걸그룹이 새로 가요계에 선을 보인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스타 그레그 이런 일

(1월 4일)

‘1·4 후퇴’ 아픔 서린 현인의 ‘군세어라...’

1951년 오늘, 정부는 서울을 다시 북한군과 중국군에게 내주었다. 12월 말부터 시작된 북한군과 중국군의 총공격은 한때 압록강물을 마시자며 진격해가던 국군을 밀쳐내려왔다. 마침내 그 해 1월 4일 정부는 부산을 향해 후퇴를 시작했다.

전쟁의 참혹한 포화와 함께 몰아치는 혹한은 목숨을 건 수십만의 피난민에게 건널 수 없는 고통이었다. 생사를 넘나드는 피난길에서 자식과 부모, 형제와 오누이는 헤어졌고 부부는 생이별의 아픔을 감내해야 했다.

그 속에 저 아득해 보이는 흉남 부두를 떠난 금순이의 오빠도 있었다.

오빠는 ‘눈보라가 휘날리는/바람찬 흥남부두’에서 금순이를 ‘목을 놓아 불러왔다/찾아왔다’. 금순이는 ‘어데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을 것이다. 오빠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1·4 이후’ 홀로 남으로, 남으로 꾸역꾸역 향했다. 그렇게 흘러들어가던 곳이 바로 부산 국제시장이었다. 일제 강점기 이후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물건들을 내다팔던 이 곳은 어느새 피난민들의 가슴 아픈 정착지가 됐다.

‘일가친척 없는 몸’ 금순이를 찾아 헤매며 먹고 살 길을 찾은 오빠는 ‘국제시장 장사치’가 되어 억척스런 현실을 뚫어내야 했다. 가슴 한 켠에 채 잊지 못한 누이동생 금순이를 담아두고 ‘보고 싶구나/고향 꿈도 그리워진다/영도다리 난간 위에 초생달만 외로이 떴다’며 울음을 삼켰다.

가수 현인이 1951년 8월 자신의 피난길이었던 대구의 오리엔트 레코드를 통해 내놓은 노래 ‘군세어라’



현인

하야 했던 무너지는 이산의 슬픔, 그 속에서도 험겨운 현실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고통스러운 노래였다.

노래는 그들의 가슴에 젖어들었고 이미 해방 직후 특유의 바이브레이션과 웅장한 외모로 톱가수의 반열에 올랐던 현인도 그들과 아픔을 함께 했다.

경성제2고보 출신인 현인은 1935년 일본 우에노대 성악과에 입학했지만 중퇴하고 귀국한 뒤 다시 중국으로 향했다. 장을 피하기 위한 공여지책이었다.

중국 상하이에서 악단을 만들어 활동하기도 한 그는 1946년 해방 직후 제16차 송환선을 타고 귀국했다. 이후 ‘배사메 무초’ 등을 개사해 부르며 큰 인기를 모았다. 그리고 작곡가 박시춘을 만나 ‘신라의 달밤’을 대히트시켰다. 그는 ‘고향만리’, ‘서울야곡’ 등 히트곡을 잇따라 내놓았고 당대 최고의 톱가수가 되었다.

‘군세어라 금순아’는 한때 가사의 ‘영도다리 난간 위에 초생달만 외로이 떴다’는 내용이 ‘소련의 국기를 말하는 게 아니냐’는 엉뚱한 오해를 받아 금지곡으로 묶였다는 후문도 있다. 1962년 배우 최무룡, 구봉서, 이대엽 등이 주연한 영화로도 만들어진 ‘군세어라 금순아’, 그 아픔은 언제쯤 가실 것인가.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생명보험협회 상의보험 제2010-28648(2010.8.12)

사망보장은 기본, 실손의료비에 연금전환도 가능합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왜 많은 분들이 교보다이렉트 종신보험을 선택했을까요?

무배당 교보다이렉트 유니버설종신보험II

교보실손의료보험은 3년마다 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80-399-0099 KYOBO 교보생명

편지 | 김재학 기자 ajapo@donga.com

최경아 교수의 6색 건강요가

월 오피스요가 | 화 치유요가 | 수 주부요가 | 목 다이어트요가 | 금 골프요가 | 토 부부요가

양쪽 어깨 비틀기 근육 풀고 피로 흘릴

당신에게 있어서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 권력, 명예, 지위, 돈, 사랑... 그 밖에 많은 조건들이 있을 것이다. 1000억 부자의 성공 비결에는 과연 어떤 요인이 있을까? 강연장에서 연설하던 그의 입을 빌리자면 첫 번째 ‘0’은 명예, 두 번째 ‘0’은 지위, 세 번째 ‘0’은 돈이며 맨 앞에 있는 ‘1’은 가족과 건강이라고 한다. 그렇다. 아무리 0이 많아 해도 맨 앞 숫자가 없어진다면 무의미하다. 필자는 다시 말하고 싶다. 첫 번째

‘0’도 건강, 두 번째 ‘0’도 건강, 세 번째 ‘0’도 건강 그리고 맨 앞 숫자 ‘1’은 ‘요가’이다. 왜냐하면 요가를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닌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다. 돈과 명예, 지위와 가족, 사랑 등 모든 것의 교집합도 합집합도 바로 건강이다. 심신의 건강은 당신에게 성공과 행복이라는 선물로 가져다 줄 것을 확인한다. 스트레스 지치고 경직된 어깨통증을 치유하고 신체 균형을 회복하자.

※효과: 1. 어깨의 경직을 해소하고 목근육을 풀어주어 통증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된다. 2. 광배근, 흉쇄유돌근, 삼각근을 자극하고 피로를 해소한다. 3. 상체를 좌우방향, 대각선으로 비틀어줌으로써 허리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2. 호흡을 내뿜으면서 어깨를 최대한 오른쪽으로 비틀어준다. 고개는 반대쪽으로 돌린다. 10초 정지, 좌우 교대 3회 반복.



3. 양발이 모두 왼쪽으로 향하게 앉아서 오른쪽은 무릎, 왼손은 발목을 잡는다.



4. 오른쪽 어깨를 아래로 낮추면서 상체를 대각선으로 비틀어준다. 이때 고개는 들어준다.



글·동작 최경아

※주의: 1. 2번 자세에서 양어깨를 오른쪽으로 돌릴 때 왼쪽이 들리지 않도록 하체를 고정한다. 2. 다리의 위치를 바꾸어서 수련하고 골반의 느낌이 어색하거나 불편한 방향은 2배로 더 연습한다.

성명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MBC해설위원 | 국민생활체육회 자원위원
저서: 100일 요가(결코 아깝지 않은 내 몸 투자)

